

scue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e야기

2016 

DT브랜드파워대상



2016 Newsletter / Autumn vol.34

제13회 서울사이버대학교 한마음 대축제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국제교류의 가교 한옥 ‘구리당(九里堂)’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와 교류하는 것만큼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과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를 방문한 해외의贵宾과 교류학생들에게
학교법인 신일학원 설립자故 이봉수 이사장의 호를 딴 구리당을 소개해
한옥체험 프로그램 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한결같은 소나무로 지어진 구리당에는
꾸준히 세계로 뻗어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도전과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CONTENTS www.iscu.ac.kr



2016 Autumn vol.34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이향아 교수
편집위원	구희정, 김영민, 박병석, 임세희, 정상원, 한수미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 944-5255 세일포커스(주) (02) 2275-6894

SCU Focus

- 04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05 201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06 2016 세계대학총장협의회 포럼
- 07 국제평화구조축 전문가 워크숍
- 08 2016 한마음 대축제
- 12 2016학년도 2학기 SCU 멘토링 결연식
- 13 SCU 멘토링 최우수상 수상 멘토·멘티
- 14 심리상담센터 오픈

SCU Today

- 16 사회복지 역량 강화 연수
- 17 제17기 동계 해외탐방
- 18 온라인 입학설명회
- 19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 20 그네신 음악원 협약 체결
- 22 교양과목 소개
- 23 UCN PRESIDENT SUMMIT 참석
- 24 학과 및 학부 신규 개설
- 26 복지시설경영전공 개설 10주년 간담회
- 27 글로벌자격관리센터

SCU People

- 28 해외명사
- 30 보직변경 임직원
- 32 상담심리대학원 전공명 변경
- 33 장학금 기부자
- 34 재학생
- 35 졸업생
- 36 대학원장상 수상자
- 37 총장상 수상자

SCU Story

- 38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임진혁 교수 특강
- 39 심리·상담학부 릴레이 페이스북 특강
- 40 청소년복지전공 특강
- 41 독서클럽 운영
- 42 대학 발전기금 홈페이지 개설
- 43 교육 콘텐츠 우수대학 선정
- 44 업무협약
- 46 SCU News
- 49 교수동정

뜨거운 격려로 졸업생의 미래를 응원한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학사 958명, 석사 89명 등 총 1,047명 학위 수여
-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과 가족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친 졸업생에게 상패를 건네는 이상균 이사장



학위수여식 후 학사모를 던지며 자축하는 졸업생들

뜻깊은 결실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 시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8월 20일(토) 오후 2시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학사 958명, 석사 89명 등 총 1,047명이 학위를 받았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개교 이래 현재까지 학부 26,044명, 대학원 37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상균 이사장, 허묘연 총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제자의 새로운 앞날을 축하하고자 지도 교수진이 참석해 의미있는 순간을 함께 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예매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해외 거주 졸업생과 가족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대학생활을 미리 만날 수 있었던 201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학사제도 및 온라인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 진행
- 학과·지역별 만남의 시간으로 대학생활 노하우 공유



경기남부 지역별 만남의 시간



학과별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영학과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

서울사이버대학교는 8월 6일(토) 오후 1시 30분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신·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낯선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안내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은 “우리 학생 대부분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데 늘 그 열정에 감탄한다. 여러분도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만큼 지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란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그 길이 고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신·편입생을 격려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날도 역시 학과·지역별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대학생들의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수 소개 시간

서울사이버대학교, 세계 명문대학과 대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다

2016 세계대학총장협의회 포럼 (IAUP Semi-Annual Meeting 2016)



2016 세계대학총장협의회 포럼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학 총장들



허묘연 총장과 우측 Alvaro Romo Secretary General(사무총장)



Alvaro Romo Secretary General(사무총장)의 주요 성과 발표

- 서울사이버대학교, 2016 세계대학총장협의회 포럼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
- 세계 유수의 대학과 지속 가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시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0월 13일(목)부터 16일(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Cape Town, South Africa)의 기술중앙대학(Central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개최된 '2016 세계대학총장협의회 포럼(IAUP Semi-Annual Meeting 2016)'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대학 총장들을 비롯해 전 세계 명문 대학 총장, 부총장 및 대학 관계자가 참가했으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허묘연 총장과 구국모 입학지원실장이 학교 대표로 참가했다.



포럼은 인류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10월 13일(목) 열린 환영 만찬 행사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포럼은 세계대학총장협의회(IAUP) 회장이 주관하는 회의를 필두로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 및 자문 회의를 이어갔다. 협회 임원·선임 자문위원회·이사회 보고와 함께 포럼의 성과들에 대해 발표하고 추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세계 유수의 대학과 함께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평화와 정의를 위한 제도 구축에 앞장서다 국제평화구축 전문가 워크숍



국제평화구축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한 국제기구 및 기관 실무자들 (산학협력단장 김현진 교수,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번 워크숍 위해 '평화구축 프로그램 기획과 관리' 커리큘럼 개발
- 분쟁국가 및 취약국의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복구에 기여할 전문가 육성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본교 캠퍼스에서 '국제평화구축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적개발원조(ODA)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분쟁국가 및 취약국의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복구 등에 기여할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국제평화구축 전문가 워크숍에는 주로 국제평화구축에 참여했거나 관심이 있는 민·군·경찰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후원하고 협력기관으로서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가 함께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국제평화 관련 비정부기구인 히로시마 평화구축인재양성센터(Hiroshima Peacebuilders Center)와 공동으로 '평화구축 프로그램 기획과 관리' 커리

큘럼을 개발했고, 이 커리큘럼을 통해 국제평화구축의 개념과 전략, 주요 활동기관 및 협력, 갈등분석, 분쟁상황 등 관련 분야의 핵심주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워크숍 강사진으로는 양측 주관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경없는의사회(MSF), 미8군 민사처 등 국제기구 및 군 기관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됐는데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이론은 물론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계평화구축 인재를 양성해 국제사회가 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하나인 '평화와 정의, 강력한 제도 구축'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서사인의 화합과 재능이 빛난 2016 한마음 대축제

- 다채로운 행사와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 채운 축제의 장
- 우수 동아리 시상과 홍보동영상 촬영 시간 가져



2016 한마음 대축제를 즐기고 있는 학우들



경기 중 같은 팀을 응원하는 학우들



학과별 특징을 살린 이색적인 패션쇼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학우들



한마음 대축제의 흥을 한껏 돋운 풍물놀이



총학생회 윤쌍봉 문화극장의 진행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학우들



경기를 관람하며 미소 짓고 있는 학우들

날씨도, 서사인의 마음도 쾌청!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0월 8일 (토) 신일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제 13회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총학생회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한마음 대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아침부터 운동장을 가득 메운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제기차기, 공 넣기 게임, 림보, 만보기 흔들기 등 다채로운 게임을 즐겼다. 각 게임이 끝나면 스티커와 팀블러, 여행용 칫솔세트, 물총 등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해 재미를 더했다. 또한 획득한 스티커 개수만큼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 떡볶이, 어묵, 순대 등 분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참여도를 높였다. 개회식을 알리는 타악연희단의 가락지 공연이 시작되자, 운동장에 흠어져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특설무대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어서 이번 한마음 축제를 기획·진행한 총학생회 조재한 회장은 우렁찬 목소리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참석 교수진을 소개해 또 한 번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에 허묘연 총장은 “조재한 회장의 힘찬 목소리와 기를 함께 나눠 받았으면 좋겠다”며, “밤새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쾌청한 하늘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역시 서사대와 서사인은 축복받은 존재다. 오늘 한마음 대축제로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축하공연



풍선 넣기 게임을 하는 학우들



협동과 단결이 돋보였던 터널놀이



학우들의 장기자랑을 보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서사인

즐거운 경쟁으로 특별하게 소통하다

명랑운동회는 짝맞추기, 기차놀이, 퍼즐, 터널놀이, 풍선 넣기, 풍선 터트리기 등 총 여섯 가지 게임으로 구성됐다. 학우들은 사랑, 믿음, 우정, 화합 4개 팀으로 나누어 참가했으며, 따스한 배려와 공정한 경쟁 속에서 돈독한 유대를 맺었다.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풍선 넣기 게임은 옷 안에 풍선을 채워 몸을 가장 뚱뚱하게 만드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 이색적인 광경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팀원 모두 승부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모든 게임의 최종 승리는 화합팀이 차지했다.

명랑운동회가 끝난 후에는 학과별 특징을 살린 패션쇼가 열렸다. 이 제껏 볼 수 없었던 학우들의 파격적인 분장과 복장에 시작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하나둘 학우들의 모습이 드러나자 곳곳에서 즐거운 탄성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총 10개 학과에서 학과별 특징을 살린 이색적인 패션을 선보였으며, 1등은 가장 참신하고 독창적인 패션을 보여준 상담심리학과가 차지했다. 한마음 대축제의 피날레는 맘마미아와 건아들의 축하공연이 장식했다. 재학생, 졸업생, 학교 관계자 모두는 두 팀의 퍼포먼스에 맞춰 춤을 추며 축제의 마지막을 마음껏 즐겼다.

활발한 오프라인 활동을 펼친 동아리 시상

이날 축제에서는 활발한 오프라인 활동을 보여준 동아리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최우수 동아리는 서마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차지했으며, 우수 동아리에는 SCU사바리산악회, 무지개 나눔 예술 봉사단, 민들레봉사단, 반딧불이, 볼링클럽, SCU한마음산악회, SCU산악회, SCU골프 등이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더불어 태안봉사활동 사진콘테스트 수상자들에게도 상패와 상금을 수여해 기쁨을 더했다.



태안봉사활동 사진콘테스트 수상자들과 이은주 부총장, 조재한 총학생회장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학업에 대한 교류도 활발한 우수 동아리

Introduction

우정도 쌓고 착한 일도 함께하는 최우수 동아리

- ‘서마클’은 ‘레이스는 작은 인생’이라고 말하며 달리기 는 물론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은 오랜 전통과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과 함께 친목을 다지는 우수 동아리

- ‘SCU사바리산악회’는 노인복지전공 동문과 학우들로 구성되어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은 물론 맛있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와서 나눈다.
- ‘무지개 나눔 예술 봉사단’은 합창, 무용, 연극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학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노인복지전공 동아리다.

- ‘민들레봉사단’은 서울남부학생회의 공식 봉사단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학우들이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 ‘반딧불이’는 경기북부지역 동문 친목모임으로 결성된 것이 새로운 봉사모임으로 발전되어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볼링클럽’은 서울 북부지역학생회를 중심으로 볼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을 다져가고 있다.
- ‘SCU한마음산악회’는 모든 학과와 학우에게 개방된 동아리이며, 산행을 통해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SCU산악회’는 2003년, 2007년도에 이어 2016년까지 동아리상을 수상했으며, 활발한 활동으로 우정과 건강을 지켜가고 있다.
- ‘SCU골프’는 ‘즐거움 골프, 행복한 골프’를 지향하며, 온라인으로는 골프에 대한 정보교환, 오프라인에서는 실속 있는 라운딩을 지향한다.



우수 동아리 대표와 허묘연 총장

재학생과 졸업생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말하다

신일캠퍼스 대운동장 초입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홍보동영상 촬영을 위한 포토월이 마련됐다. 한마음 대축제에 참가한 재학생 및 졸업생은 포토월에서 그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며 느낀 학교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입학을 망설이는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북돋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홍보동영상은 홈페이지(www.isc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홍보동영상 촬영을 위해 포토월에 모인 학우들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홍보동영상 인터뷰

Interview



김예진 군경상담학과 3학년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와서 학우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학업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즐겁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시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의미있는 학창생활을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혜연 상담심리학과 2학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게 된 이유는 사이버대학교지만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기 마련인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업 교류가 활발해 후회없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희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2학년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음악학과(피아노전공)가 있다는 것은 강점이자 자랑입니다. 정통 클래식 공부를 화상 강의를 통해 집에서도, 또 다른 공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피아노를 공부하고 싶다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추천합니다.



최지현 상담심리학과 2학년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 아이도 중학교에 입학하고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고,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SCU 멘토링 결연식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과 학생처장 전광호 교수 및 재학생들

선·후배 화합으로 긍정적인 대학생활 이끌어 2016학년도 2학기 SCU 멘토링 결연식

- 적응이 필요한 후배 멘티에게 대학생활 정보 제공
- SCU 멘토링으로 대학생활에 활기 부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8월 20일(토) A동 5층 강의실에서 2016학년도 2학기 멘토링 결연식을 진행했다. 결연식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운영방법, 기본활동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어질 멘토링 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기대와 이해를 도왔다. SCU 멘토링은 선배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후배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경험이 많은 선배 멘토가 적응이 필요한 후배 멘티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한결 수월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선배 멘토는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학점이 3.0 이상이며, 활발한 상담을 통해 멘티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등 동료 학습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에 한해 선발한다. 이날 멘토링 결연식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처음으로 대면했으며, 화합으로 서로의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워 줄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결연식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온·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멘토링 포트폴리오 최우수상 수상자 김경애 학우



좌측 김경애 멘토와 우측 강순자 멘티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멘토·멘티!

멘티 학업의지를 북돋워 주는 멘토님

오랫동안 일을 하다 그만두니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삶의 활력을 되찾고자 못다 한 학업의 길로 들어섰죠. 컴퓨터를 다뤄본 적이 없는데, 수업을 들으려면 컴퓨터가 필수라 김경애 멘토님을 엄청 귀찮게 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라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학업에 대한 부담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려한 적도 있어요. 그때 멘토님이 매일같이 전화해서 다독여주시고 제가 온라인 학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어요.

멘토 학과 모임 100% 출석률을 자랑하는 적극적인 멘티님

멘토멘티 결연 때 유난히 강순자 멘티님에게 마음이 갔어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학기 초에 온라인 학습환경을 낯설어 하셔서 ‘그만둘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학습의지를 북돋워 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어요. 차츰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과 모임에도 100% 출석률을 자랑합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멘티님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멘티님은 재학생분들에게 본보기가 될 정도로 열심히세요. 덕분에 저 또한 더 열심히 학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멘티 믿고 따를 수 있는 김경애 멘토님

학과 모임에서 멘토님이 브리핑할 때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리더십도 있고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자랑스럽고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잘 이끌어주는 멘토님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잘 따라가고 싶어요.

멘토 강순자 멘티님은 내 인생의 멘토님

강순자 멘티님은 든든한 제 편이에요. 늘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 관심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멘티님을 만나고부터 부끄럽지 않은 멘토가 되고자 더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업에서는 멘토일지라도 강순자 멘티님은 제게 인생의 멘토님이시죠.

멘토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어주는 존재

멘토멘티는 힘들어할 때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주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죠. 학업과 더불어 인생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심리상담센터 오픈

서울심리상담센터를 비롯해 분당, 인천, 대구 등 4개 지역

- 재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여줄 심리상담센터
- 상담 실습 용이해 자격증 취득에 도움줄 것



상담 중인 심리상담센터장 이우경 교수



놀이치료 중인 내담자 아이와 상담사



서울심리상담센터 안내 데스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본교를 비롯해 분당, 인천, 대구 등 지역 학생 분포도를 고려해 주요 거점 지역에 심리상담센터(<http://cec.iscu.ac.kr>)를 개설했다.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본교 재학생의 상담 실무능력을 강화해서 심리·상담학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역 캠퍼스 내 센터 개소로 상담 실습 및 자격증 과정을 한층 편리하게 제공해 재학생의 상담 능력 향상 및 학업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인근 주민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역 심리상담센터는 심리·상담학부 및 석사과정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실습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1, 2급 등 수련 및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센터 자체적으로 특강을 진행해 재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재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심리 상담 및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처와 연계해 재학생과 가족을 위한 심리 검사 및 개인 심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심리장애 예방 프로그램, 부모역할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감수성 훈련 집단, 자존감

인천심리상담센터



인천심리상담센터 휴식공간에 놓인 심리학 서적



인천심리상담센터 최명숙 팀장이 그림 검사를 통해 진행한 '나 자신, 우리가족 이해하기' 특강

분당심리상담센터



분당심리상담센터 강의실



분당심리상담센터 권숙경 팀장이 진행한 '어우, 너무 화가 나' 특강



심리상담센터

- <http://cec.iscu.ac.kr>
- 서울 (02)-944-5800 인천 (032)-330-3831
분당 (031)-702-9260 대구 (053)-755-7573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재학생과 인근 지역 주민의 심리 건강을 보살필 예정이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 검사 및 개인 상담을 받으려면 각 지역 센터에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본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인 이우경 센터장은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심리상담센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에 퍼져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편리하게 심리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습과 수련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우리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 향상은 물론 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SCU 심리상담센터는 현재까지 개설된 4개 지역 외에 광주에도 오픈할 예정이며, 이외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일본의 사회복지기관 탐방으로 견문을 넓히다

- 일본의 우수한 사회복지 현장 견학 및 교육
- 노인복지 서비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스템 등 몸소 체험

후쿠오카 ● 벳푸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지난 7월 6일(수)부터 9일(토)까지 나흘간 일본 큐슈 지역의 후쿠오카와 벳푸에서 '사회복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우수 기관의 견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견문을 넓히고, 나아가 재학생의 진로탐색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일본 사회복지현장 방문연수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반향을 일으키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의 주요 관심 대상인 장애인 및 노인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관련 기관을 탐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일본 큐슈지역에서 돌아본 주요 견학장소는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으로 사회적 기업이 창출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인 '사단법인 Sinka(후쿠오카시)'와, 일본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비즈니스 스쿨인 '사회기업대학(기타큐슈시)'을 방문하여 일본의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과 다양한 창업 분야를 소개 받았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1965년 창립하여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부터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까지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생활하도록 커뮤니티 조성을 이뤄낸 '사회복지법인 태양의집(벳푸)'을 방문하여 장애인이 직접 일하는 현장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주거시설로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자립생활부터 다양한 돌봄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메종드잇도우엔(벳푸)'을 방문하여 노후의 안정적 생활 유지 현장을 둘러보았다.

모든 탐방을 마친 연수 참가자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복지시설을 둘러볼 수 있어서 무척 새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현지 직원에게 내부시설에 대한 안내와 운영 방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학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 연수에 참가한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원우들



노인주택인 메종드잇도우엔 견학 후 시설 운영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



장애인시설인 '태양의 집'에 대한 소개 시간

서울사이버대학교 제17기 동계 해외탐방 베트남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나눔을 실천하다



탐방과 봉사로 알차게 채운 3박 4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나흘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해외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해외탐방에는 봉사활동까지 더해져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첫째 날에는 베트남의 유명 명소인 전쟁박물관, 대통령궁, 중앙우체국을 둘러보았으며,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베트남 시내를 돌아다니며 현지 문화를 체험했다.

둘째 날은 베트남 구찌현에 위치한 티응 고아원을 방문했다. 티응 고아원은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는 곳이다. 거동이 불편한 50여 명의 아동을 조 안나 수녀를 비롯한 5명의 한국인 수녀가 현지 봉사자들과 함께 돌보고 있다. 해외탐방 참가자들은 일손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티응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전날 비행의 고단함도 잊은 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셋째 날에는 빙미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이곳 직원들은 서툰 한국어로 현수막을 걸고 참가자들을 환영해 절로 미소 짓게 했다. 인사를 나눈 후에는 참가자들이 미리 준비한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안겼다.



티응 고아원을 방문해 선물을 기증하고 봉사활동을 마친 학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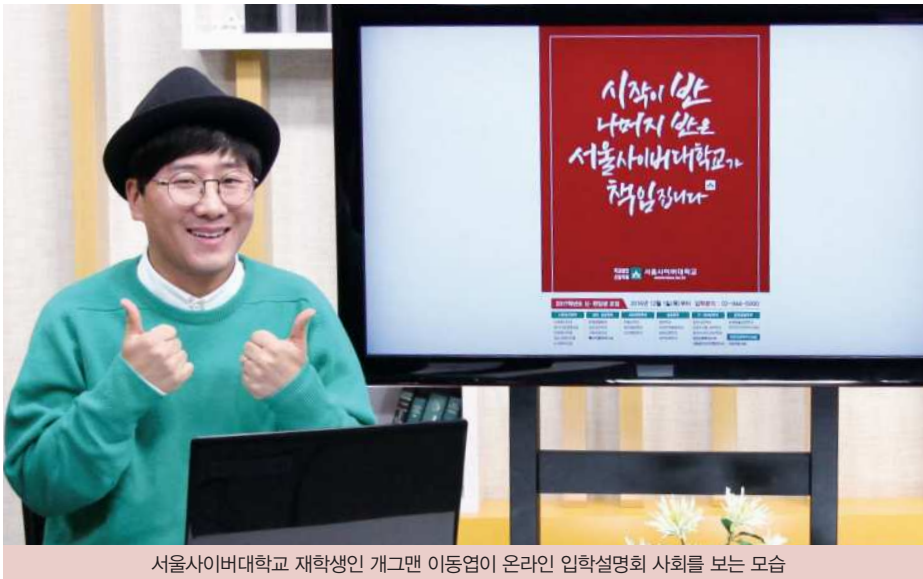
봉사활동으로 더욱 뜻깊었던 시간

베트남 해외탐방 및 사회봉사에 참가한 재학생은 “베트남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들렀던 티응 고아원이었다. 반짝반짝한 눈으로 우리를 보던 아이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다”며 활동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년 해외문화탐방을 통해 학우들이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개그맨 이동엽 재학생과 함께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설명회 생중계
- 2017학년도부터 특수치료학과, 정보보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자유전공학부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인 개그맨 이동엽이 온라인 입학설명회 사회를 보는 모습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2017년 1월 10일(화)까지 신·편입생을 모집하는 가운데 지난 12월 8일(목) 오후 7시부터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pply.iscu.ac.kr>)를 통해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시청자가 올린 질문을 서울사이버대학교 콘텐츠기획·제작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개그맨 이동엽과 이완형 입학처장, 정상원 교무처장이 답변하는 대화형식으로 진행했다. 개그맨 이동엽은 특유의 입담으로 재치있게 질문에 답했으며, 유쾌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입학설명회를 이끌어 나갔다. 개그맨 이동엽은 중앙대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설명회에서는 시청자들이 꼽은 질문 가운데 'TOP5'를 선정해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등록금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완형 입학처장은 “등록금은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이며, 졸업 시 일반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

사 학위를 취득한다”고 답했다. 장학제도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연 140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전형이 신입생 대상 17개, 재학생 대상 22개로 최대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강의를 100%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며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이점을 전했다. 덧붙여 “학생들이 인문학적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캠퍼스에서 다방면의 명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할 경우 자유롭게 참석하면 된다”며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 스스로 공부기간과 졸업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대학교 최초로 방학기간에 집중학기를 듣는 학생맞춤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학년도에는 특수치료학과, 정보보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와 온라인대학교 최초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상세한 입학안내로 신·편입생의 길라잡이 역할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입학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대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입학처를 두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입학안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입학지원센터 (<http://apply.iscu.ac.kr>)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입학지원센터에서는 지원자들이 일정에 맞춰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입시알림 서비스에서부터 선배들의 애정이 가득 담긴 '나의 학과 이야기' 인터뷰 동영상까지 제공해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자 자신에게 알맞은 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상세한 학과안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1:1 입학상담 게시판에 구축해 1시간 이내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 2017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은 2016년 12월 1일(목)부터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또는 온라인입학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apply.iscu.ac.kr>





그네신음악원 Galina Mayarovskaya 총장과 허묘연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학부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러시아 명문 그네신 음악원과 협약 체결

- 서울사이버대학교, 러시아 3대 음악대학인 그네신 음악원과 협약 체결
- 그네신 음악원과의 협약으로 재학생에게 해외 연수 기회 제공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그네신 음악원(The Gnesins Russian Academy of Music)과 협약을 체결했다. 그네신 음악원은 러시아 3대 음악대학 중 하나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자랑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감은 물론, 재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그네신 음악원의 다양한 시설을 견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우수학생을 선발해 지난 10월 23일(일)부터 29일(토)까지 6박 7일 동안 그네신 음악원으로 해

외 연수를 다녀오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수대상자는 연수를 통해 유명 교수의 개인 레슨 및 마스터 클래스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연주회 개최, 현장 수업 참관 및 워크숍 참가뿐만 아니라 그네신 음악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까지 다채로운 특전을 누렸다.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들에게 매년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고 선진 클래식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네신 음악원을 상징하는 동상 앞에서
교무처장 정상원 교수, 허묘연 총장을 비롯해 그네신 음악원 관계자들



그네신 음악원 연수에 참가한 음악학과(피아노전공) 학생들



마스터 클래스를 마친 후 러시아 지도 교수 및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신지연 교수와 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피아노전공) 학생들의 알차고 유익했던 그네신 음악원에서의 시간

Interview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윤현아

설립자이신 그네신 여사가 생활했던 장소를 비롯해 학교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서린 그네신 음악원에서 받은 마스터 클래스를 특히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자 현지 교수님은 피아노 음색에 대한 진중하고 엄격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표현해야 하는 음색과 작곡가가 요구하는 음색이 맞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 지도해주셨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김지훈

세계적인 음악학교인 그네신 음악원의 피아노 교수님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음악을 대할 수 있는 안목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전체적인 곡의 완성도를 중요시하고 그 곡의 성격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레슨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알려주셔서 앞으로 발전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통해 제공받은 새로운 음악 경험은 정말 뜻깊었고, 향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연수를 통해 음악적 성취를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가득한 교양과목 소개

-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전쟁과 평화, 삶과 사색 등 4개 과목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의 교양과 식견의 폭을 넓혀주고자 다양한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교양과목은 총 4개 과목으로 '중국 사회문화의 이해', '삶과 사색', '전쟁과 평화', '나의 삶 속의 색'이다.



박병석 교수가 강의하는 '중국 사회문화의 이해'

박병석 교수는 '중국 사회문화의 이해'를 통해 중국의 주요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희 교수가 강의하는 '삶과 사색'

김용희 교수는 '삶과 사색' 강의를 통해 후기 산업사회가 개인 가치관의 혼란과 심리적 방향을 확대시킨 것으로 보고, 관련 인문학·철학 서적을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해 사유할 수 있도록 본 과목을 개설했다.



권구순 교수가 강의하는 '전쟁과 평화'

권구순 교수가 진행하는 '전쟁과 평화'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본 전쟁의 의미와 20세기 후반 탈국기한 군사적 폭력을 분석하는 한편, 평화의 개념적 이해와 평화활동의 사례를 통해 분단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직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향아 교수가 강의하는 '나의 삶 속의 색'

이향아 교수는 '나의 삶 속의 색'을 통해 색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색의 의미에 대해 폭넓은 관점을 제시한다. 색채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반응과 상징을 이해해 풍부한 색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허묘연 총장, 사이버대학교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는 'UCN PRESIDENT SUMMIT' 참석

사진제공 : 한국대학신문



UCN PRESIDENT SUMMIT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과 사이버대학교 총장단



발표 중인 허묘연 총장



토론회를 듣고 있는 허묘연 총장



1차 회담에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총장은 지난 11월 24일(목) 서울클럽에서 열린 사이버대학교 PRESIDENT SUMMIT에 참석해 '스마트 기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대학 교육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UCN PRESIDENT SUMMIT은 우리나라 사이버대학교 총장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 자리로 사이버대학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묘연 총장은 발표순서에서 스마트 기반 교육환경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와 미래 대학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허묘연 총장은 발표를 통해 "사이버대학은 스마트 기반을 활용해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지닌 강점을 극대화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묘연 총장의 발표 후 '미래 교육환경 변화와 사이버대학의 역

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11월 10일(목)에 열린 1차 회담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해 18개 사이버대학교 총장단과 사이버대학교 위상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사이버대학교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지원 시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이나 가치, 자율성, 다양성 등에 초점을 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테두리 안에서 사이버대학교의 발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차 UCN PRESIDENT SUMMIT은 사이버대학의 발전과 공생을 위한 건배 제의를 끝으로 다음의 자리를 기약하며 회담을 마쳤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육의 흐름을 선도할 신규 학과 및 학부 개설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특수치료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4년제 대학교 학부과정에 특수치료학과를 신설했으며, 특수치료학과 학과장은 임정선 교수가 맡았다. 놀이치료, 인지학습치료, 트라우마치료, 예술치료 등 심리학의 이론을 토대로 특수치료의 전 영역을 망라해 다양한 치료기법과 과목을 습득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차별화된 역량과 통합적인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졸업 후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인지학습치료, 트라우마치료, 예술치료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센터, 사회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특수심리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본교 대학원, 특수치료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지속적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특수치료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 취득가능한관련 자격증

국가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민간등록자격증 : 놀이치료사, 모래놀이치료사, 인지행동지도사, 피해상담사, 상담심리지도사, 미술치료사, 예술치료사, 독서치료사

총장명의수료증 : 아동상담사

● 홈페이지 psychotherapy.iscu.ac.kr



미래 정보보호 전문인을 양성하는 정보보호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학과를 개설했으며, 정보보호학과 학과장은 오창환 교수가 맡았다. 정보의 파괴, 변조, 유출 등과 같은 정보보호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보호학과는 정보의 역기능을 막고 대응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21세기 IT사회의 신뢰를 확충하고자 국가, 기관, 기업, 개인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첨단 정보보호기술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한기술 경쟁 속에서 급변하는 정보보호기술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자격증 교육과 미래 정보보호 전문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취득가능한관련 자격증

국가자격증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민간자격증 : 정보보안관제사, 해킹보안전문가 1, 2, 3급, 인터넷보안전문가 1, 2급, 개인정보관리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 2급

국제자격증 : CISSP, CISA

● 홈페이지 security.iscu.ac.kr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7학년도를 맞아 3개 학과와 1개 학부를 신설했다. 이는 사회적 요구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실무 위주의 학과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학문적 다양성 추구를 위해 자유전공학부를 개설,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학과 예술, 인문 사회학이 만난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과학적, 창의적,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건축공간디자인학과를 개설했다. 경제 발전, 문화 수준 향상으로 사람과 공간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융합 학문으로서의 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건축공간디자인학과 학과장은 홍선관 교수가 맡았으며, 건축 및 인테리어 두 가지 특성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는 건축 전문가를 양성해 관련 분야의 진출을 돕고자 한다. 건축공간디자인학과는 다양한 실용 기반·실무 관련 커리큘럼으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를 밝게 빛낼 전망이다.

● 취득가능한 관련 자격증

전문자격증 : 건축사, 건축구조사, 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사자격증 :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전산응용설계(CAD)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콘크리트 기사

● 홈페이지 arch.iscu.ac.kr



학문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유전공학부

서울사이버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전공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지식과 학습 능력을 배양하면서 소통, 융합, 글로벌 역량의 토대를 구축하고 학문적 다양성을 기하고자 개설됐다. 자유전공학부는 先입학, 後전공선택 제도를 통해 입학 후 3학기 동안 충분한 전공 탐색의 기회를 가져 적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은 인문학 강의를 주도해온 김용희 교수가 맡았다. 자유전공학부 재학생들은 인문·사회, 지식·문화융합, 글로벌인재의 3대 핵심교양 트랙을 통해 전문교양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자격증을 연계·취득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준비도 겸하게 된다. 또한,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성인학습자들 및 한국사회에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학업능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지도체계를 갖추고 있다.

● 자유전공트랙과 관련 자격증

인문·사회 : 독서지도사

지식·문화융합 : 지식문화코디네이터

글로벌리더십 : ODA자격증(일반), ODA자격증(심화), 세계시민교육강사

● 홈페이지 sls.iscu.ac.kr

복지시설경영전공 개설 10주년 간담회 사회복지학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다

-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된 특이전공으로서 벤치마킹 사례 늘어
- 특화된 장점으로 꾸준히 글로벌 리더 양성해갈 것



(좌측부터) 심선경 교수, 박태정 교수, 박기훈 교수, 권금주 교수, 정상원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전공 교수진이 전공 개설 10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어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시설경영전공은 2007년 전국 최초로 개설됐으며, 일반 사회복지 전공 교육에서 나아가 복지경영이라는 전문영역을 학문체계로 정립하는 데 앞장서 온 독보적인 전공이다. 10년간 학과를 이끌어온 결과 200명 이상의 동문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책임경영자 혹은 관리자로서 활약 중이고 사회복지시설을 창립한 졸업생 역시 5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생소했던 복지시설경영 분야를 개척하고 현재는 다른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사회복지학계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톡

톡히 하고 있다.

그간 복지시설경영전공은 사회복지경영의 가치와 윤리, 재정, 회계, 노동, 인사, 마케팅, 그리고 전략에 이르는 전 분야를 교과과정에서 다루며 지역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인재를 양성해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교수들은 “제대로 된 사회복지의 가치를 가르치고 이를 경영기법에 녹여내는 교육이야말로 특화된 장점”이라고 입을 모았고, “우리 학생들이 사회복지계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복지경영 일선의 트렌드를 꾸준히 반영하면서 실무능력을 키우는 특화수업을 시도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재학생의 꿈을 지원하는 글로벌자격관리센터

- 자격증 취득정보 제공 등 학생 개인 맞춤형 관리
- 해외 주요 대학과의 교육협력 추진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하는 글로벌자격관리센터장 박태정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올해 9월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자격관리센터를 신설했다.

글로벌자격관리센터는 기존 21개 사이버대학교 가운데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최초로 개설한 기구로서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재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또한 재학생 개인별 생애주기를 고려해 자격증 컨설팅까지 한곳에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자격관리센터에서는 재학생의 전공 혹은 관심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주요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개인 맞춤형 관리를 제공한다. 뿐

만 아니라 그간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독보적으로 추진해온 국제교류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육협력을 통해 주요 과정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자격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태정 교수는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맞게 될 학생들을 도와 넓은 안목으로 제2의 인생비전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채워갈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라며 센터의 사업 방향을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글로벌자격관리센터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사업이 재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계획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히로시마 평화구축인재양성센터 사무국장 히데야키 시노다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국제평화구축 전문가 워크숍 매우 역동적이고 교육적 효과가 높았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구축인재양성센터
사무국장 히데야키 시노다 박사

히로시마 평화구축인재양성센터(Hiroshima Peacebuilders Center 이하 HPC)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인간안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외무성(우리나라 외교부에 해당)은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평화구축에 기여할 전문가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가 양성 연수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외무성의 판단에 따라 저를 주축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2007년에 히로시마 평화구축인재양성센터(Hiroshima Peacebuilders Center, 이하 HPC)를 설립했습니다. HPC는 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매년 6주의 기초과정과 1주의 중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급사 과정의 일본 연수생은 기초과정 수료 후 약 1~2년간 유엔자원봉사단(UNV)을 통해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구축요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평화 구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와세다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1993년부터 유엔 캄보디아과도행정기구(UNTAC)에서 선거관리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로 잘 알려진 폴 포트의 폭정 이후 20년간의 내전을 마치고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는 중이었고, 제 역할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면서 무력충돌 이후 국가 재건과 평화 구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런던 정치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의 정치학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학위취득 후에는 히로시마대학교의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았고 현재 도쿄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안보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구축 실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히데야키 시노다 박사와 권구순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국제평화구축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한 소감은 어떤가요?

아주 역동적이고 교육적 효과가 높았습니다. 연수생의 국적도 다르고 민간단체, 군인, 경찰 등 소속기관이 상이하다 보니 갈등분석이나 시뮬레이션 시간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때문에 평화 구축에 관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수생 대다수가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현했고 강사로서 연수생의 그룹활동 성과도 훌륭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짧은 연수기간 때문에 연수생에게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좌측부터) 권구순 교수, 히데야키 시노다 박사, 허요연 총장

일본은 온라인대학교가 일반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본 대학교는 온라인 수업이나 교육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저희 도쿄외대도 온라인 수업을 시범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수와 학생 간 대면 수업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하고 나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충분히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시설과 인프라 측면에서 최고의 온라인 교육환경을 갖춘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학업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봅니다. 국제평화구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한반도의 평화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들도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평화분야에 관심을 갖길 바라며, 다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공동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고, 잠재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자 새로운 보직에 임명된 9명의 임직원. 그들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보직과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대학원장 (교무처장 겸직)
정상원 교수

복지시설경영전공 정상원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학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상원 교수는 대학원생이 현장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교수진에게 밀착 지도를 받아 현장전문가,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무처부처장 (도서관장 겸직)
한수미 교수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교무처부처장으로 임명됐다. 교무처는 학사운영 계획뿐만 아니라 교수업적 평가, 강의 평가, 수업 진행 등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비롯해 학사과정을 총괄 운영한다. 한수미 교수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학사운영은 물론, 교수들이 깊이 있는 학술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처부처장 (노인복지전공 전공주임 겸직)
박기훈 교수

노인복지전공 박기훈 교수가 학생들의 대학생활 안내자 역할을 하는 학생처부처장으로 임명됐다. 학생처는 학과에 대한 정보부터 강의에 대한 정보, 학사과정 안내까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기훈 교수는 부처장 임기 동안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글로벌자격관리센터장
박태정 교수

복지시설경영전공 박태정 교수가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글로벌자격관리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됐다. 글로벌자격관리센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재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태정 교수는 재학생들이 넓은 안목으로 제2의 인생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리상담센터장
이우경 교수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가 재학생들에게 실습과 교육기능을 제공할 심리상담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심리상담센터는 재학생의 상담실무능력을 강화해 심리·상담학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개설되었다. 이우경 교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과 수련과정을 강화해 재학생의 학업 만족도를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김용희 교수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가 2017년부터 새로이 개설되는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으로 임명됐다. 자유전공학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 3학기를 이수한 후 2학년 2학기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사이버대학교 중 유일하게 개설된 학과로서 입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부합하는 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심리·상담학부장
상담심리학과장
(산학협력단장 겸직)
김현진 교수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가 상담 및 심리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상담심리학과 학과장으로 임명됐다. 상담심리학과는 재학생들에게 인간의 심리와 행동 변화에 대한 심리학 기초 및 심화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김현진 교수는 이론과 상담실제를 아우르는 교육과정으로 재학생들이 심리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사회과학 학부장
(부동산학과 학과장 겸직)
김동환 교수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회과학 학부장으로 임명됐다. 사회과학학부는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세 개 학과가 소속된 학부다. 김동환 교수는 우수한 교수진과 체계화된 교육과정 제공으로 재학생이 기초과목은 물론 실무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글로벌
자격관리센터 팀장
이호관 팀장

교무행정팀 이호관 주임이 재학생들의 자격증 이수 컨설팅을 돕는 글로벌자격관리센터 팀장으로 임명됐다. 글로벌자격관리센터는 재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자 개설됐다. 이호관 팀장은 재학생의 개인별 생애주기를 고려해 학생 맞춤형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대가 부르는 정신건강전문가의 길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으로 전공명 변경

- 재학생들의 진로선택 폭 확대
- 다양한 장학금 혜택으로 학업 기회 확대

상담심리대학원의 상담심리 전공이 2017학년도부터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으로 전공명을 변경한다. 이는 2017년 정신건강증진법이 개정(5월경 예정)되면서 석사학위 소지자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의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은 또한, 고도전문화시대에 걸맞게 상담심리 트랙, 임상심리 트랙, 코칭심리 트랙, 아동청소년가족상담 트랙이라는 4개 트랙으로 구성돼 있어 국내 어느 상담심리대학원보다 차별화된다. 이 트랙제도를 통해 대학원생은 상담심리와 임상심리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다 심화된 학습과 연구를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트랙을 중심으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생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담실습과 수련을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국내 주요 거점 도시에 개설한 심리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에 산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상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오프라인 대학원과 온라인 대학원 중 유일하다.

또한,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에서는 정신건강에 관련한 특정한 문제 또는 현상을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상담심리대학원 채정민 주임 교수

접근할 수 있도록 ‘북아티클럽’(Bookarti Club, ‘부가티’라는 유명한 고가의 차량 명칭에서 따온 것으로서 가치 있고 전문적인 북클럽 방식을 의미함)을 운영하고 있다. 북아티클럽은 클럽에 가입을 원하는 대학원생들이 담당 교수가 선정한 3~4권의 서적과 최근 논문을 읽은 후 이에 대해 심도 있고 전문적인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한 권의 책을 읽고 학우들끼리 단순히 독후감을 공유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북클럽 방식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대학원식 학습방식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코칭심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12월 3일(토) 코칭심리 관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진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개척자이며 권위자인 여러 강사진을 초청해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칭 분야의 비전, 자격증 취득 과정, 그리고 교육영역별 코칭 실제 기술에 대해 다뤘다. 상담심리대학원 채정민 주임교수는 “서울사이버대학원의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은 다양한 세부 전공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고, 매년 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정신건강전문가 양성의 메카”라고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저에게 1순위입니다

-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우가 있어 행복
- 학우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파



경상학부 경영학과 김희숙 학우

적게나마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세무회계를 전공하고 30년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이 쉽지 않아요. 직원이 늘어나니 인원관리도 녹록지 않고 글로벌화에 발맞추려면 전문적인 경영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너십(Ownership)을 기르자는 마음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했죠. 한 번도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경영인의 밤’에 참석하게 됐어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우들을 직접 보니 참 멋있었죠. 동시에 열정적인 학우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학우들이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대출 받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적게나마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 장학금을 내게 됐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끈끈한 유대관계를 쌓았어요.

처음에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해서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참가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열의 넘치는 학우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고 학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됐어요. 또한, 교수님 역시 오프라인 모임 때마다 모두 참여하셔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학우들과 끈끈한 우정과 유대관계를 쌓았죠. 덕분에 학창시절 못지않은 소중한 추억을 많이 간직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남편과 아이들 역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제 모습을 격려해주고 존경스럽다고 인정해주어 뿌듯함을 느꼈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우들이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더없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하면서 느낀 것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후로는 개인적인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각오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졸업하고 나니 오히려 허전함이 느껴져 경영학과 동기들과 함께 대학원에 진학할까 고민 중입니다. 성취감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학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지식뿐만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성취감과 진실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과감히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대학원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명훈 원우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가 생겼는데,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습니다. 육아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고민하던 차에 지인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추천해주었습니다.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진학하게 됐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학우들과의 지식 공유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서로 토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 학업에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또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여러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현장 감각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학업에 막막함을 느낄 때면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멘토가 있어 학업을 지속하는데 많은 힘이 됐죠. 아이들을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학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까지 진학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 노인복지 시설 및 복지시스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돼 사회복지전문가 및 정책전문가로 거듭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흥미롭고 즐겁게 직장생활과 학업에 임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처음엔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적극적인 학습활동 유도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습니다. 현재는 평소에 관심이 많던 지역 아동센터 및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발전 방향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 계층에게 힘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전문성을 기르고자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배운 능동적인 의사소통으로 유아 보육 상태 등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제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육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자기통제, 사회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인성의 밑거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뿌듯합니다. 아울러 흥미롭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직장생활과 학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을 계속할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져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직장생활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열의에 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다시금 의욕이 생깁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나 인생의 이모작이 가능해졌어요

심리 ·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이난지 학우



사무실 한 칸에 이난지 학우의 모습이 담긴 사진



이난지 학우의 업무 중 하나인 금연지원과 관련된 유인물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컴퓨터 잡지사, SK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 등에서 홈페이지 기획 및 제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3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맞이해 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스킨십하고 마음을 나누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지만 상담교사가 되어 학교 폭력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의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후 지인들의 추천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했고,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금연상담사로,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에서 임상심리사로 일하며 꿈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학업으로 꿈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커리큘럼에 맞춰 꾸준히 강의를 들었고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던 동영상 강의 시간, 자격증 취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센터에서 실습 수련 과정을 거쳐 임상심리사로서 전문성을 얻을 수 있었기에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디니 진로의 좌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과 선배들, 동기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멘토링 시스템, 스터디 모임 등 자격증 취득 대비 공부를 함께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담사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들의 강연은 구체적인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진솔함을 나누었고, 이는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가까이 동반자가 돼주었고, 제가 내딛는 발걸음에 좌표를 제시해주었습니다.

대학원장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동기와 교수님 덕분입니다

이화식

휴먼서비스대학원 졸업생



대학원 동기들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교수님을 덕분입니다.

영광스러운 학위수여식에서 대학원장상 수상으로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늘 반복학습을 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수업이나 화상토론 등 계획된 수업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것이 학업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열심히 토론하고 수학했던 대학원 동기들과 진심어린 마음으로 열의를 다해 지도해주신 교수님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좋은 동기와 교수님 덕분에 대학원장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늘 업무와 공부에 매달리는 저를 이해해주고 든직한 남편, 자랑스러운 아들로 존중해준 우리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대학원 진학 전에도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공부했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게 됐죠. 길음역장으로 근무하던 때 길음종합사회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직원들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제도나 시설, 법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진학하게

됐죠.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다보면 늘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덕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시간 두 시간 전 학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대학원에 입학해 사회복지 현장 견학, 사회복지 역량 강화 연수와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등에 참석한 덕분에 실전에 필요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박사과정 진학도 고려 중입니다.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과정 진학을 고려 중입니다.

100세 시대에 제 나이는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퇴직 후에도 쉬기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며 남을 돕는 데 시간을 쏟고 싶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업무 관련 강연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강사로 활동하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 상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원 진학으로 꾸준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처럼 학업에 의지가 있다면 일단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총장상 수상으로 땀과 노력에 대한 후한 대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조형철

법무행정학과 졸업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처음 총장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
니다. 저보다 학업에 열성적으로 임하는 뛰어난 학우님이 많
은데 제가 총장상을 수상해도 되는지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그동안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느라
힘들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고, 그 힘든 시간에 대한
값진 보상인 것 같아 영광스럽고 매우 기쁩니다. 제가 총장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여러모로 애써주신 교수님들과 교직
원, 학우님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사이버
대학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는 저처럼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할애할 시간이 항상 부족하
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강의시간에 최대
한 집중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동영상
강의 후 복습을 통해 학습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이런 학습방법은 누구나 다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서는 공부를 하겠다는 의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공부하고 싶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학업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모바일 강의 덕분에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
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업무 지식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됐죠.

저는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할수
록 법률 지식에 대한 배움의 욕구가 커졌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사관이 되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됐죠. 서울
사이버대학교에서 배움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서 부족하게 여겨졌던 이론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업무에 적용해 일처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것
이 새로운 목표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앞
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MOOC와 Flipped Learning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임진혁 교수 특강

- 교육의 질을 높이는 MOOC
- MOOC와 Flipped Learning 통합 적용으로 최적의 교육 시스템 제공



(좌측부터) 남상규 실장, 김영민 교수, 임진혁 교수, 허묘연 총장, 김시원 부처장, 구국모 실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20일(화) 본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임진혁 교수를 초청해 온라인 공개 수업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Flipped Learning 시스템 관련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온라인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고 본교의 교육 시스템과 MOOC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진혁 교수는 유니스트 교수학습센터장이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정책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서 공유, 검증, 비교 가능성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MOOC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쌍방향 소통이 어려운 MOOC의 단점을 보완하여 최적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Flipped Learning을 소개했다. Flipped Learning은 학생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강의 시간에는 문제 풀이 또는 토론을 통해 심화된 교육이 가능한 수업방식을 말한다. 이 같은 수업방식은 사전 학습을 통

해 학생들의 수준 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lipped Learning을 적용하려면 학생들이 사전에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임진혁 교수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 스스로 열의를 갖고 선행 학습을 하게 되므로 이는 Flipped Learning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진혁 교수는 “Flipped Learning을 적용하면 최적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임진혁 교수의 특강 뿐 아니라 우수한 교육 시스템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강 중인 임진혁 교수

마음의 창(窓)으로 세상과 소통(疏通)하는 15분 특강시리즈

-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 릴레이 특강 진행
- 본교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통해 강의 생중계



심리·상담학부 릴레이 페이스북 특강 화면



'초심 상담자의 실수를 막는 꿀팁'에 대해 강의하는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



'집단상담의 이해와 솔루션'에 대해 강의하는 특수치료학과 학과장 임정선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는 릴레이 페이스북 특강을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리·상담학부 학생들의 전공 심화 학습을 위해 진행된 릴레이 특강은 지난 7월 11일(월)부터 8월 2일(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창통(窓通·마음의 창으로 세상과 소통하라)'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덟 명의 전공 교수가 각기 다른 소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7월 11일(월) 김환 교수의 '상담전문가를 위한 심리상담의 기초' 강의를 시작으로 7월 14일(목) 김현아 교수의 '초심 상담자의 실수를 막는 꿀팁', 7월 18일(월) 임정선 교수의 '집단상담의 이해와 솔루션', 7월 21일(목) 이자영 교수의 '상담전공자의 미래설계를 위한 팁', 7월 22일(금) 김현진 교수의 '자녀의 학습습관, 심리로 해결한다', 7월 25일(월) 구희정 교수의 '아동과 발달, 개념다지기', 7월 28일(목) 김지연 교수의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바꾸는 팁', 8월 2일(화) 채정민 교수의 '문화심리적으로 본 브렉시트' 강의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번 릴레이 특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페이스북 팬페이지로 생중계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도 영상을 통해 강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

청소년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청소년복지전공 특강

-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법



특강을 듣고 있는 참석자들



'부모교육'에 대해 강의하는 정현주 교수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해 강의하는 김윤나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는 9월 24일(토) 청소년복지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및 '부모교육' 특강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했다.

오전에는 청소년복지전공 김윤나 교수의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진행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정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인원수는 몇 명으로 해야 효과적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지도했다. 이 강연을 통해서 수강자들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평가까지 심도 있고 체계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었다.

청소년복지전공 정현주 교수는 오후 특강에서 '부모교육'을 주제로 청소년복지전공 재학생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재학생들이 평소 자녀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자녀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은 무엇인지, 그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녀와 소통하는 법과 그들의 속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를 익히며 그들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청소년복지전공 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 문화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e-도서관 ‘독서클럽’ 운영



독서클럽 참여 소감을 말하는 이성륜 학우

서울사이버대학교 e-도서관은 지난 10월 24일(월)부터 12월 2일(금)까지 지원자에 한해 ‘SCU Book’s WAVE’라는 독서클럽(<http://cafe.naver.com/scuctlbook>)을 운영했다. 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회원 간 토론을 통해서 읽고, 쓰는 학습 기본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하게 된 독서클럽은 앞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이 중 총 4명의 운영자를 선발하여 팀별 운영자의 주도하에 각기 다른 도서를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해왔다.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시 원하는 팀을 기입해 선택할 수 있다. 상담심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권오창 원우와 상담심리대학원의 박희수 원우,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이성륜 학우,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졸업한 황현식 학우까지 네 명의 학우가

각자 선택한 도서에 따라 여러 학우와 다양한 스타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서클럽 시범운영 참가자이자 운영자로 활동한 상담심리학과 2학년 이성륜 학우는 “평소에 독서 스타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서 독서클럽 시범운영에 참가하게 됐다. 책 한권을 읽고 학우들과 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이 활동으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운영자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한 독서클럽은 활동 종료 후 결과물로서 개인별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글로벌 TOP 10 사이버대학교라는 비전 실현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개설



대학교 발전기금 참여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 홈페이지 화면



기부자 예우프로그램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 후원 참여 독려 및 기부자 예우 위해 개설
- 기부금 종류 및 사용처, 현황 등을 공개해 투명한 운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부금 종류와 사용처, 현황 등을 교직원과 학우, 동문, 외부인들에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중장기적 발전계획인 ‘비전 2022’를 수립하고 글로벌 대학교에 걸맞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지향적 교육시스템 개발을 위해 대학 발전기금 후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발전기금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발전기금 후원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SCU 발전기금, 연구기금, 장학기금, 건축시설기금, 국제교류기금, 지정기부 등 원하는 바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종류를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학기금의 기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우들이 어려운 처지의 동문들과 함께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발전기금을 기부한 후원자를 예우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명예의전당’을 만들고, 기부자 공연 초청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육 콘텐츠 우수대학 선정

-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시상식 개최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육 콘텐츠 우수대학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13일(목) 한국대학신문이 주관하는 '2016년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에서 교육 콘텐츠 우수대학부문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제정한 상으로 대학을 경영하는 총장의 노력과 대학의 경영 성과 등이 우수한 대학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그간 재학생들의 견문을 넓혀주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SCU Wave On Demand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군인을 위한 군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박현석 부총장은 "훌륭한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영광이고 이처럼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박현석 부총장과 타 대학 수상자들

며 "앞으로도 우수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시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매진해 재학생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시상식에서 교육 콘텐츠 우수대학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박현석 부총장



(좌측부터) 허묘연 총장과 이상균 이사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샌 버너디노) 모랄레스 총장과 관계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 버너디노)와 MOU, 다방면으로 교류와 협력 이어나갈 예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11월 7일(월) 미국의 명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 버너디노)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와 MOU를 체결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 버너디노)에는 한국인 재학생을 비롯해 다수의 아시아계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장·단기 전문 언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을 캠퍼스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MBA 과정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MOU를 맺기 위해 이날 처음 한국을 방문한



허묘연 총장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샌 버너디노) 관계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 버너디노) 모랄레스 총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온라인 과정 공동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싶다”며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MOU 체결로 두 학교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대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 버너디노)는 학업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교환학생 프로그램 진행, 교직원들의 합동 연구 활동,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여 등 다방면으로 업무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센트럴 오클라호마 대학교와 MOU,

학술교류 및 재학생의 해외탐방 기회 확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업무협약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8월 5일(금) 미국 오클라호마주 소재의 주립대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와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서울사이버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 돈 벡츠 총장이 본교 졸업생에게 축하를 전해준 것을 계기로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학위수여식 축하 당시 돈 벡츠 총장은 졸업생에게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하는 내용의 축하를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국제교류 및 상호발전을 모색하고, 교수와 학생 교환, 교직원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후 첫 공식 행사로 2017년 1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가 공동으로 '중독상담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동 학술세미나를 통해 대학 간 공동 연구 및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학생들의 해외탐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총장은 "본교의 우수한 온라인 학습환경을 바탕으로 재학생들이 해외 명문 대학의 교육 콘텐츠를 경험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양교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엘살바도르 공과대학교와 MOU,

온라인 고등교육의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 약속



텔레컨퍼런스를 이용해 엘살바도르 공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허묘연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18일(금) 엘살바도르 공과대학교(UTEC)와 학술·교육 분야의 협력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학 간의 공식 행사로는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실시간 원격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양측은 대학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엘살바도르 지역의 원격교육 활성화 타당성 조사 등 국제협력사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허묘연 총장은 "여러 국제교육협력 사업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엘살바도르 공과대학교와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UTEC 측을 대리해 국제 협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밀튼 헤레라 대사는 "두 대학이 온라인 고등교육의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길 희망하며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CU NEWS

서울사이버대학교 뉴스

사회복지학부 교수진 워크숍



▲ 통합적인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의견을 나누는 사회복지학부 교수진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진(이문숙, 박형원, 이서영, 이희연, 심선정, 정현주, 강인, 박기훈, 권금주, 박태정, 정상원, 정영애, 임세희, 이은주, 김윤나)은 9월 27일(화) 선진적인 사회복지 이론과 복지 분야의 실천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교과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수진은 학부인재상을 마련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과 보육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실습과 관련해서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상학부 교수진 워크숍



▲ 2017학년도 학과별 협력사항 및 발전방안 논의 중인 경상학부 교수진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상학부 교수진(고운승, 전광호, 박병석, 이완형, 김영민, 임태순, 서영수, 전호진)은 10월 14일(금)부터 15일(토) 양일간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과별 자격증 현황, 경영지도사 자격증, 경상학부 공동 자격증 운영을 비롯해 2017학년도 학과별 주요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 후 학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학과별 개발이 가능한 교내 자격증에 대해 논의하고, 학부경쟁력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경영지도사 관련 다양한 특강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심리·상담학부 교수진 워크숍



▲ 상담시연 및 현장실습에 대해 논의 중인 심리·상담학부 교수진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 교수진(구희정, 박종선, 채정민, 한수미, 김환, 김현아, 이우경, 김현진, 김지연, 최혜라, 옥정, 김지영, 김요완, 이정원, 이자영, 임정선)은 10월 6일(목)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2017년 교육과정 개편 회의를 가졌다. 2016학년도 학부경쟁력 사업의 일환인 '2016 SCU 심리·상담학부-체험, 상담의 현장 속으로'의 진행상황 협의 및 12월에 서울 및 전국적으로 진행할 상담시연 및 현장실습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연탄 한 장의 온기를 전달한 봉사활동



▲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참가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25일(화)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WAVE 사회봉사단과 재즈뮤지션 '연탄프로젝트'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의 일환으로 15가구에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노인복지전공 3학년 강정미 학우는 "힘들었지만 베풀면 더 기쁘다는 말과 닿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재즈뮤지션 연탄프로젝트 멤버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기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재학생을 위한 커리어코칭센터 개설



▲ 커리어코칭센터 취업특강 홈페이지 배너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의 적성 및 역량을 고려해 전문 커리어 코치에게 1:1 맞춤형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커리어코칭센터를 개설했다. 맞춤형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역량 개발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해 실전커리어까지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커리어코칭센터는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선호도 검사, 커리어코칭상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특강 및 면접클리닉, 실전 구직활동 등 개인적 성향 파악에서부터 구직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과 러시아 수교 26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 한-러 수교 26주년 기념 음악회를 관람한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허요연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

9월 30일(금)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수교 26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가 개최됐다. 이날 기념 음악회는 신지화 소프라노, 양송미 메조 소프라노, 안드레이 그리고리 에프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돋보였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 발전을 위해 양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세웅 명예이사장은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장으로서 양국의 교육 발전은 물론 다양한 문화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콘텐츠기획·제작학과 이성태 교수가 말하는 인문학 교육법



▲ 이성태 교수가 진행한 'Pro Bono 지식나눔 위기의 아이들'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콘텐츠기획·제작학과 이성태 교수가 지난 9월 29일(목) 본교 A동 503호에서 'Pro Bono 지식나눔 위기의 아이들'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강북구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인문학, 테크노와 하이퍼컬처시대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하이퍼컬처시대에 아이들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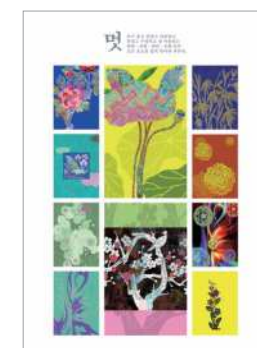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신지연 교수 피아노 독주회



▲ 신지연 교수 피아노 독주회를 관람한 허요연 총장과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신지연 교수는 지난 9월 19일(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그랜드피아노 콘서트, 보스틴 음대 동문음악회 등 왕성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지연 교수는 이번 독주회에서 브람스,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 거장들의 곡을 연주했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 일본 masui R.D.R gallery에서 개인전 열어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의 개인전 '멋'에 전시된 작품 이미지들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지난 8월 23일(화)부터 28일(일)까지 일본의 masui R.D.R gallery에서 '멋'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향아 교수는 기다림, 기쁨, 사랑, 연꽃 등의 다채로운 작품을 전시했으며, 특유의 색채감과 따뜻함으로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CU NEWS

서울사이버대학교 뉴스

돈독한 유대관계를 위한 지역모임



▲ 신·편입생 환영회를 진행한 인천부천지역 학생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오프라인 지역 모임을 가지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지역과 서울중서부지역 및 인·부천 지역은 각자 신·편입생을 환영하는 시간을, 서울북부지역은 시립수목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 경기동부지역은 친목을 다지고 자이문숙, 김지영, 최혜라, 김선정, 나정혜 담당 교수와 함께 MT를 다녀왔다. 경남지역 역시 전광호 학생처장이 참석해 MT를 다녀왔으며, 총학생회는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느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은 분기별로 공식적인 지역모임 활동을 통해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관람



▲ 교직원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연 <마술피리>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9월 23일(금) 교직원들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족오페라 <마술피리>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마술피리>는 예술의전당에서 9월 23일(금)부터 27일(화)까지 진행된 공연으로 모차르트의 음악적 감성에 동화 같은 스토리가 더해졌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인 <마술피리>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비롯해 완벽한 음악 구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름다운 음악과 감성적인 스토리가 더해져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교직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SCU 총동문과 베스트동아리 연합등반대회



▲ 연합등반을 진행한 총동문과 베스트동아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과 베스트동아리는 지난 10월 22일(토) 연합등반대회를 진행했다. 청계산에서 진행된 연합등반대회 행사에 이은주 부총장과 정오동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교수진들이 참석해 함께 산을 올랐다. 이날 산행에는 총동문과 재학생 포함 100여 명이 함께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학우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하계 봉사활동



▲ 하계 봉사활동을 진행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8월 27일(토) 2016년 하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하계 봉사활동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태안군에 위치한 신진도에서 해변 쓰레기를 청소했다. 총학생회는 "뜨거운 햇볕에 쓰레기를 줍느라 고생스러웠지만 백사장이 깔끔해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 골프대회를 개최한 총동문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1월 10일(목)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여주군의 한 골프장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는 18홀 스트로크에 의한 신페리오 방식을 적용해 핸디캡으로 우승자를 선정했다. 경기 규정은 대한골프협회 규정과 대회조직위 규정에 준하며 골프장 로컬룰도 적용해 공정성을 기했다. 총동문회는 승패를 떠나 동문과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동정



강인 교수

이주여성 및 노인에 관한 논문 게재

노인복지전공 강인 교수는 2016년 6월 20일 international information institute에서 「The Influence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Depression in Married Chinese and Vietnamese Immigrant Women」이라는 논문을 공동 발표했으며, 9월 19일에는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권 9호에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고윤승 교수

핀테크와 경력태도 관련 논문 게재 및 발표

경영학과 고윤승 교수는 8월 30일 『e-비즈니스연구』에 「클라우드 펀딩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월 30일 『무역통상학회지』에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 탐색적 연구」 그리고 『한국과학예술포럼』에 「우리나라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을 위한 활성화 방안 탐색」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11월 4일 한국기업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프로그래밍, 성격(Big5)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권구순 교수

블렌디드 이러닝과 난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논문 발표 및 게재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2016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열린 국제정치학회 창립60주년기념 하계학술대회에서 「성인대상 블렌디드 이러닝 개발이해교육의 인지적-태도적 학습효과성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2016년 8월 31일에는 「상담학연구」 17권 4호에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의 시리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 게재했다.



김영민 교수

물류직업만족도와 LSR에 관한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2016년 6월 30일 『유통경영학회지』 제19권 3호에 「물류업 종사자의 직업만족도 비교 연구」라는 논문(공동), 8월 31일에는 「물류학회지」 제26권 제4호에 「물류프로세스에서 LSR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공동)을 게재했다.



김요완 교수

난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논문 게재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는 2016년 8월 31일 『상담학연구』 17권 4호에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의 시리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 게재했다.



김용희 교수

주택연금 활성화에 관한 논문 발표

자유전공학부 김용희 교수는 2016년 6월 30일 한국부동산경영학회에서 「노후세대를 위한 주택연금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윤나 교수

국제사회복지와 청소년에 관한 논문 발표 및 사회 복지실천론 저서 출간

청소년복지전공 김윤나 교수는 2016년 6월 11일 국제사회복지학회에서 「국제사회복지의 연구동향 : 세계빈곤과 불평등을 중심으로」(공동)와 6월 18일 청소년연합학술대회에서 「청소년 가출 위험수준에 따른 인식 및 중동 경험차이에 관한 연구」(공동)를 발표했다. 7월 20일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사회복지실천론〉을 출간(공동)했다.



김현아 교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2016년 6월 30일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에 「직업 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공동)을 게재했으며, 8월 31일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신경정신의학』에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연구 방향 도출」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박기훈 교수

노인의 노동에 관한 논문 발표

노인복지전공 박기훈 교수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노인의 삶의 보람 노동 의미 및 가능성: 일본의 삶의 보람 노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박병석 교수

21세기 초 중국신좌파 중국정치모델 관련 논문 발표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2016년 11월 3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사)한국현대중국연구회와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 주최한 「2016 한중인문학술교류포럼」에서 「21세기 초 중국 신좌파 중국정치모델론의 역사주의화와 국가주의화의 종극: 중화성(中華性)」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교수동정



한수미 교수

어릴 적 상처와 공감능력 상관 관계에 대한 포스터 발표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한국상담심리학회 2016 학술회에서 <어릴 적 외상과 불안정 애착이 공감적 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성태 교수

가상공간에 대한 작품 전시

콘텐츠기획제작학과 이성태 교수는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에서 'Cyber Space'라는 이름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우경 교수

<임상심리학> 관련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2016년 8월 30일 『DSM-5에 의한 최신 임상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학지사에서 출간했다.



이완형 교수

기업가정신의 재조명에 관한 논문 발표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완형 교수는 2016년 11월 5일 한국로고스경영학회 추계 통합학술대회에서 「기업가정신의 재조명 : 종교개혁정신 관점에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의신 교수

「공연관객개발」과 「축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문발표와 게재 및 공연기획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의신교수는 2016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린 The 34th FACP Annual Conference에서 「Audience Development through the customer-oriented performance planning」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기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2016경기공연예술 창작소케이스'를 기획했다. 또한 2016년 12월 30일 [한국과학예술포럼] vol.26에 「지역축제의 참여 주체 간 거버넌스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자영 교수

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효과에 관한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는 2016년 6월 30일 『통일연구논총』 제25권 제1호에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으며, 8월 31일 『교육방법학회지』 28권 3호에 「사이버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정원 교수

APL적응전략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는 2016년 7월 31일 『Crisisomy』 제12권 제7호에 「APL적응전략 프로그램이 군 복무 부적응자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환경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향아 교수

개인전 '멋'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2016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일본의 masui R.D.R gallery에서 '멋'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희연 교수

교육복지PC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이희연 교수는 2016년 9월 30일 『학교사회복지』 제35호에 「교육복지 프로젝트조정자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임세희 교수

주거빈곤 문제에 관한 논문 게재 및 발표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는 2016년 8월 31일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3호에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이라는 논문(단독)을 게재했으며, 9월 23일에는 제9회 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아동기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전광호 교수

영업사원 보상체계와 이력정보품질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는 2016년 6월 30일 『상품학 연구』 제34권 제3호에 「영업사원의 보상체계에 관한 정성적 연구 : 보상에 대한 수혜자의 기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과 8월 31일 『상품학 연구』 제34권 제4호에 「이력정보품질이 학습자 만족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 : 학습자 경험의 조절역할」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전호진 교수

중국기업 관련 논문과 LSR에 관련된 논문 게재 및 발표
세무회계학과 전호진 교수는 2016년 6월 30일 『동북아 경제연구』에 「중국기업 해외 IPO성과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린 2016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IPO 중국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8월 31일에는 『물류학회지』 제26권 제4호에 「물류 프로세스에서 LSR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공동으로 게재했다.



정상원 교수

복지시설경영에 관한 논문 발표

복지시설경영전공 정상원 교수는 2016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린 'The Join World Conference on Social Work, Education and Social Development 2016'에서 「The Influence of Ethical Climate on Social Workers' Customer Orientation and the Moderator Effect of Person-Organization Fit」이라는 논문을, 2016년 6월 30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An Exploratory Study of Volunteering Behavior among Protestants in Korea」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채정민 교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한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는 2016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학술대회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위상(SES) 변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차가워도, 마음만은 따스하게 해줄 SCU 문화 나들이

학문의 즐거움

저자 : 히로나카 헤이스케

역자 : 방송양

출판사 : 김영사



유년학교 시험에도 떨어졌던 소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따기까지의 인생이야기를 담았다. 늦은 시기에 수학의 길을 택했지만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까지 수상한다. 쟁쟁한 천재들을 제치고 단시간에 학문의 기적을 이룬 비밀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서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전

기간 : 2016. 10. 29~2017. 3. 5

시간 : 11:00~20:00(11월~2월 11:00~19:00)

(매월 마지막 월요일 휴관)

장소 :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전시



프랑스 예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 컬렉션이 한국을 찾았다. 밀레, 반고흐, 르누아르, 모네, 폴 고갱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거장들의 명작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20세기 현대 미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 12월 29일(목)부터 원서접수
학 부 : 12월 1일(목)부터 원서접수
문 의 : 02-944-5000(학부)/5500(대학원)

최고 교수진
최첨단 23,000㎡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콥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2번 출구**입니다.